

40세에 총수… CEO 보좌받아 당분간 과도 체제

'포스트 구본무' 구광모 체제의 LG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장남 출신 외아들 잃은 구 회장 양자로 입적 2006년 LG 재경부문으로 입사

구본무 LG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상무가 LG그룹의 경영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구 상무는 내달 29일 열릴 (주)L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LG는 그룹의 지주회사로, 구 상무가 (주)LG 등기 이사로 선임되면 LG그룹의 경영 전면에 본격 나서게 된다.

구 상무는 원래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로 낙점됐다.

서울 경복초교, 영동고교를 거쳐 미국 로체스터 공대를 졸업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

입양 2년 뒤인 2006년 구 상무는 LG전자 재경 부문에 대리로 입사하며 경영 수업에 입문했다.

2007년에는 미국 스텐퍼드대 MBA(경영학석사) 과정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자신의 전공 분야인 IT(정보기술) 실무를 익히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으로 옮겨 1년간 근무했다.

이후 미국 뉴저지법인, TV·오디오를

담당하는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 선행상품기획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 창원사업장 등을 거쳤다.

제조와 판매 현장, 해외와 지방 등을 두루 경험한 셈이다.

2014년 지주사인 (주)LG 경영전략팀 상무로 승진한 이후로는 그룹의 주력사업·미래사업을 챙기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를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B2B사업본부의 정보디스플레이(ID)사업부장을 맡았다. 2월에는 ID사업부를 이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산업용 디스플레이 국제전시회 'ISE 2018'에 참가해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구 상무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겸손하고 소탈한 성격이지만 일하는 방식은 실행을 깊이 챙기고, 고객과 시장 등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앞서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데 힘을 쏟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동안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엔 그동안 경영 수업 차원에서 낮은 직급의 자리를 맡아왔고, 2014년에야 상무로 승진한 이유도 있다. 아직 40세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젊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구 상무는 앞으로 LG그룹 전문 경영인들의 보좌를 받아 그룹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현희 (주)LG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 LG 유플러스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6명의 부회장들이 계열사별 경영을 책임지되, 구 상무는 큰 틀의 경영 방향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역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LG전자가 최근 인수한 오스트리아 자동차 헤드램프 업체 ZKW나, LG전자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 상무는 미국 유학 중 만난 아내 정효정씨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etroseoul.co.kr

구본준 부회장에 쓸린 눈

집안 전통따라 향후 분가

계열사·사업 분리 가능성 무게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을 이끌게 된다.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상무는 2004년 고인의 양자로 입양된 이후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내달 29일 열릴 (주)L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계기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본준 LG 부회장은 따로 독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준 부회장은 구 회장의 4형제 중 셋째다.

LG가(家)는 전통적으로 장자가 경영권을 승계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퇴진하는 전통이 있다.

이에 따라 구본준 부회장도 독립경영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구본준 부회장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주)LG의 지분 7.7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 지분을 밀천 삼아 일부 계열사나 사업부문을 분리해 독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LG상사와 판토스 등 상사

부문, 또는 디스플레이 사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교통정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각 자금만 들고 독립할 수도 있다. 다만 구본준 부회장의 독립 시기가 당장이 될지, 아니면 2~3년 정도의 과정이 걸리거나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구본준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와병 중인 구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 대행 역할을 해왔던 상황에서 1978년생인 구 상무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

'4세 구광모' 상속세만 1조 추산

지분승계 어떻게

구광모 (주)LG 지분 6.24% 보유
11.28% 물려받아 최대주주로

LG그룹 3세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향년 73세로 태계했다.

구 회장의 별세로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경영권이 승계되며, 지주회사인 (주)LG의 지분도 구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LG는 LG화학(30%), LG전자(34%), LG생활건강(34%), LG유플러스(36%)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들은 사업부문별로 수직계열화된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순환출자가 없는 순수지주회사로 (주)LG 최대주주에 올라서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구 상무는 (주)LG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회장(11.28%)의 지분을 물려받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상속세다. 구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

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주)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 파악을 위해 그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할증률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 8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넘어간다.

/정은미 기자

롯데캐슬이 새롭게 진화하면

당신의 생활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품격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라이프스타일의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롯데캐슬의 전혀 새로운 진화

이제, 당신이 직접 누리실 차례입니다

NEXT CASTLE